

회고록



성용길

제16대 회장(1999년)

한국고분자학회와의 50년 동간의 인연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는 인생 일주기로 비교하면, 반평생의 길을 걸어 장년에 이르게 된 셈입니다. 고분자과학과 고분자공학 기술 분야에 뜻있는 여러 선배님께서 1976년도에 출범시켰고, 그 후에 본인도 학회에 가입하여 인연을 맺었습니다.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생체고분자재료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1978년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추계학회가 대구시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고, 그때 한국고분자학회 정기총회에서 특별강연 연사로 첫 발표를 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초대회장은 성좌경 장관님이 계셨고 노익삼 박사가 전무이사였습니다. 당시엔 학회 회원 수가 많지 않아 서로가 매우 친밀하고 재미있는 가족적 분위기였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에 나가면 동료 선배, 후배를 만나서 고분자에 관한 학술적인 토론을 하면서 서로 돕고 협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분자학회에 자주 가고 싶었고,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반가웠습니다. 점차 한국고분자학회 본부에 임원이 되어 재무이사, 총무이사, 감사, 부회장, 회장이란 직분들을 두루 맡아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4대 정기현 회장 때에는 학회본부 재무이사로 고분자학회의 재정살림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5대 김점식 회장 때는 김계용 전무이사, 총무이사 김영하 박사와 같이 공동으로 학회 살림을 맡아 강북 충무로 버드나무집 근처 프라스틱회관 사무실 좁은 공간을 사용하다가 그곳에서 강남 오피스텔 공간으로 우리 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을 옮겨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 본부가 서울 강남의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선배 회장단과 임원진의 큰 결단과 공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점식 회장님과 전임회장단 임원진께서 큰 용단을 내시어 학회 사무실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어수선한 시절에 우리 학회 회장단과 임원진들이 현명하게 이주를 결정한 것은 아주 성공적인 결단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학회 사무실 공간을 강남에 단독으로 확보하게 된 것은 선배회장단의 큰 업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후에 한국과 일본고분자 공동 심포지움이나 일본고분자학회와의 교류는 초창기의 우리 학회의 개척사에 귀중한 자료로 기억됩니다. 우리 한국고분자학회의 회장단 임원들과 일본고분자학회의 회장단 사이의 연합 공동세미나와 고분자 공동 심포지움을 서울, 교토, 동경, 오사카 등지에서 시행했던 일들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우리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과 학문 수준을 높이는 좋은 기회였고, 그 활동이 이어져서 그 이후에는 세계 각국들과의 국제교류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합심하여 유지했던 IUPAC 고분자 심포지움(회장: 안태완 교수)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어 한국고분자학회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임원 모두가 나서서 협력하고, 회장단 부부동반으로 본 학회에 나와서 협조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또한 EU의 폴란드나 체코와의 국제 심포지움도 진정일 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져 양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던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제2차 한국-체코 공동 고분자화학 심포지움은 1998년 12월 1-2일 양일간 프라하에 있는 체코학술원 산하의 고분자화학연구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제15대 회장 이후성 교수와의 동행으로 일본고분자학회 회장 가마치 교수(오사카대학) 초청으로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일본고분자학회에 참석한 일도 생각납니다.

회고록

그 후 일본고분자학회 회장으로 가지야마 회장(규슈대학 총장)이 이어 받았고, 한국에서는 본인이 16대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이 되어 한·일 양국 간에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고분자학회와의 교류가 후일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를 국제학회로 발돋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의 창립: 우리 한국고분자학회에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설된 것은 1993년 10월 9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개최되었던 한국고분자학회(회장: 한만정 교수) 추계총회 때의 일입니다. 초대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장에 성용길 교수가 선임되었고, 김은영 원장, 김영하 박사, 강인규 교수, 조종수 교수, 정서영 박사 등 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300여명이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의 회원과 한국생체재료학회 창립(1996년)으로 이어져 이 분야의 연구가 상호 보완 육성되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분야 학회로 크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고분자학회의 1998년도 정기총회 연구논문 발표회가 10월 16~17일 양일간에 걸쳐 박정희 대통령 고향,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연인원 약 1,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단의 임원선출과 인준이 있었습니다. 차기 제16대 회장단 임원으로서 회장 성용길 박사(동국대 교수), 수석부회장 김광웅 박사(KIST), 부회장 신현주 박사, 김성철 교수, 최철림 박사, 감사에 이동호 교수, 김영하 박사, 전무이사 김낙중 박사, 총무이사 이상원 교수가 각각 인준받아 그 총회에서 선임되었고, 단상에 올라 성용길 신임회장의 인사말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IMF의 위기(1997년 11월 21일 구제금융 신청)를 겪어내야 하는 때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금모으기 운동 등, 구조조정이 들어갈 때여서 매우 힘들었다고 기억됩니다. 당시 김낙중 전무이사가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합심하여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운영되었습니다. 모든 회원과 고분자 생산기업체 회원사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재임기간 한국고분자학회의 큰 행사로는 춘계 정기총회-학술논문 발표회(서울, 동국대학교, 4월 16-17일 양일간), 추계총회-학술논문 발표회(부산, 부산대학교, 10월 15-16일 양일간) 등이 있었으며, 제7회 고분자 아카데미(국립표준기술원, 6월 22-25일) “고분자 소재의 개발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엄(설악 한화리조트, 7월 22-24일), 제21회 고분자기기분석 세미나(대전, 한국화학연구소, 11월 5-6일 양일간) 실시하는 등 계획된 순서대로 잘 수행하여 연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었던 회장단 임원진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국제적인 학자로 편집위원을 구성시킨 영문지 편집이사 김진곤 교수(포항공대), 학술편집이사 김준경 박사(KIST), 기술지 편집이사 김환규 교수(한남대), 재무이사 박문수 교수(수원대), 산학연 기획이사 김성훈 교수(한양대), 차국헌 교수(서울대), 고분자아카데미 기획이사 박태욱 박사(국립기술품질원), 이명훈 교수(전북대), 고분자기기분석 기획이사 육순홍 박사(화학연구소), 신동명 교수(홍익대), 조직이사 이명천 교수(동국대), 하창식 교수(부산대), 최동훈 교수(경희대), 정보전산이사 류주환 교수(충남대) 등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과 업무향상에 기여해주신 모든 임원과 회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바야흐로 그해가 바로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를 맞이하는 뜻깊었던 해였습니다.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학회발전연구위원회(성용길 위원장)에서 우리 학회 회장의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후임 회장(차기 수석부회장)을 평의원회에서 선출토록 총회에서 심의 통과하여 인준을 받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차기 수석부회장 김성철 교수(KAIST)가

회고록

회장(김광웅 박사)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회장으로 학회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행 회장 선거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분자학회는 고분자 화학, 물리학, 공학, 기술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 학술단체로, 현재 저성장 시대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분자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석유 화학 중심의 국내 고분자 산업이 직면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밀 소재 및 차세대 고분자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학·연·관이 협력을 강화해서 학계의 기초연구와 산업계의 응용·생산 기술을 연결하고,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고분자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대책을 토론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융·복합 기술 및 첨단 소재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IT·BT·NT 융합 가속화: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 기술(NT) 등 타 분야와 고분자공업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능형 소재, 약물전달시스템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 및 지속가능성 대응, 친환경 소재, 폐기물 재활용(recycle), 바이오-고분자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문제해결 개발연구를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 학술지 및 연구 수준의 글로벌화 향상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외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고분자 연구자들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발간을 통해 학술적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우리 학회에 참여하는 젊은 학자와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연구발표와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는 저성장 시대의 성장가능 모델창출, 첨단 융·복합소재 개발연구, 지속가능한 친환경 고분자 기술개발의 강화를 통하여 학문과 산업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역대회장님과 임직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